

서울회생법원 제14부(나)

사건번호 2019회합100199회생

관리인 보고서

2020년 02월 03일

주식회사 데코앤이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회생법원 제14부(나) 2019회합100199 회생사건의 법률상관리인 이영창입니다.

그동안 채무자 회사가 채권단을 비롯한 이해관계인 여러분께 피해와 염려 등 누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본인은 채무자의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공적인 수탁자임을 명심하고,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정과 형평의 원칙하에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채무자 회사가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회사는 1985.11.02. 주식회사 대하패션이란 상호로 설립되어 국내 여성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으로 2000.03.(주)네티션닷컴으로, 2010.09.(주)데코와 흡수합병으로 (주)데코네티션으로, 2014.08.(주)데코앤이로 상호를 각 변경하여 'DECO'라는 전문직 여성을 위한 모던,시크,럭셔리, 캐릭터 브랜드로 국내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20대 중반 ~ 40대 중반까지 폭 넓은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11일 최대주주였던 (주)제이피어드바이저와 (주)키위미디어그룹 사이에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되고 2017년 9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자가 변경되고, 약 6개월 후인 2018년 3월 최대주주였던 키위미디어그룹과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이사와 사이에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자가 변경되었지만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가 되었고, 2018년 6월 28일 최대주주였던 키위미디어그룹은 스타캠프202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7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이 다시 한 번 변경되었습니다.

위와같이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바뀌면서 대표이사 또한 변경되었고 이에따라 사업 목적에 따른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운 점 및 회사의 유동성 등 어려움 발생하였고 경영권이 변경되면서 경영자들이 무리한 투자와 과도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대금으로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목적과 다른 회사 또는 그 동안 영위하지 않은 엔터테인먼트 등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채무가 증대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에 대한 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의 실사조정금액 기준으로 자산은 약 21,159,844천원, 부채는 약 22,557,355천원이며, 청산가치는 12,172,030천원, 계속기업가치는 17,778,810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5,606,780천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고된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에 대한 시·부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인 2019년 12월 26일까지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1건이며 11,440,000원이 신고되어 전액 부인하였으며, 회생채권은 252건에 금액은 28,429,718,106원이 신고되어 17,680,349,309원은 시인하고, 10,749,368,797원은 부인하였습니다. 벌금·조세 등은 4건에 108,052,365원이며, 주식·출자지분은 약 11,000건에 7,292,807,5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회생사건에 제출되어 있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벌금·조세 등, 주식·출자지분권자 등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할 예정입니다.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주시고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채무자로 하여금 경제적인 손실로 많은 고통과 심려를 끼쳐드리니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